

# 전주대 “섬김의 리더십 실현하고자”

### 총 80여명… 하계 해외봉사단 발대식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로 3개팀 파견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청춘의 꿈과 열정을 온누리에!’ 라는 슬로건으로 봉사를 진행하는 2018년 하계 해외봉사단의 발대식을 지난 12일 온누리홀에서 진행했다.

이번에 파견되는 전주대학교 해외봉사단은 총 80여명으로 미얀마(양근, 홀라임피아 빈민촌)와 캄보디아(프놈펜, 꼬마비전센터), 몽골(울란바토르, 122번 학교)로 총 3개팀이 파견된다.

해외봉사단은 교육팀(한국어 및 한국문화, 과학, 미술, 공예 등), 문화예능팀(축구, 태권도, k-pop 및 율동 등), IT팀(드론, 포토샵, Power point, Movie Maker 등), 지원팀(요리, 유아 체육 및 레크레이션, 미술 등)으로 나눠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해당 국가별 전주대학교 유학생이 참여하여 봉사의 의미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주대 해외봉사단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몽골 현지의 요구에 기초하여 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봉사단원의 전공별로 팀을 구성하여 2달 전부터 전문 봉사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봉사활동의 수준을 높였다.

전주대 김광혁 사회봉사센터장은 “우리 학생들이



전주대학교는 ‘청춘의 꿈과 열정을 온누리에!’ 라는 슬로건으로 2018년 하계 해외봉사단의 발대식을 지난 12일 온누리홀에서 진행했다.

국내의 어디에서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전하는 실천하는 봉사인, 학생 전공을 활용한 전문 봉사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교양인, 헌신과 봉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세계에 전하는 도전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전주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대학교, 600여명 대상 ‘찾아가는 자원봉사 소양교육’ 실시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지난 11일부터 2일간 3회에 걸쳐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 찾아가 대학생 대상으로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3회에 걸쳐 교육에 참여한 대학생 600여명은 사회교과목을 신청한 대학생들로 기관 및 시설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전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활동 시 유의사항, 현장에서 갖춰야할 기본지식과 역할 등을 교육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들은 1365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기관 및 시설과 각종 문화행사 등에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되며, 30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학기마다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대학생봉사자들을 위해 매 교육 때마다 센터에서 실시하는 ‘마일리지제’ 사업을 안내하고 자원봉사자를 만드는 것을 권장하는 등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 고창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

고창소방서는 지난 12일 오후 고창군노인요양원에서 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2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고창군노인요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했으며 긴급구조통제단 및 각 지원기관의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및 가동 훈련▲재난현장 단계별 메시지 부여 대처능력 훈련▲단계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능력향상 훈련▲통제단 현장지휘소 각 부별 재난 대응 숙달훈련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철성 현장대응팀장은 “대형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과 같은 훈련을 꾸준히 실시 해 안전한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재해 발생시에 소방·경찰·고창군·군부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현장 대응 및 수습·복구 등을 실시하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고창소방서장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군산대 총여학생회, 화장실 몰래 카메라 탐색 활동

화장실 몰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대학교 총여학생회가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활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군산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지난 4월 초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술집, 노래방, PC방, 식당 등 교외 화장실을 돌며 몰래카메라 탐색 작업을 벌였고, 이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매일 교내 화장실 몰래 카메라 탐색 활동을 했다.

학생들이 사용한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대학 본부에 입주해있는 보안업체에서 대여한 것으로, 총여학생회 임원 10여명은 조를 편성해 매일 2교 대로 교내 건물 전체 화장실을 탐색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이성미 학생취업지원처장과 함께 새로 이전한 대학본부 화장실의 몰래 카메라 탐색 작업을 벌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 장수 계곡면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화·꽃모이식작업 실시

계곡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규범)는 최근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계곡면을 찾는 내방객들을 위하여 지역 대표 관광지인 토목동 계곡일대에서 환경 정화활동과 어전체육공원 꽃모이식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와 계곡면 직원 등 50여명은 토목동 계곡주변 쓰레기 줍기를 비롯해 지난 5월에 포트 파종해 놓은 꽃묘(수레국화, 과꽃, 백일홍, 코스모스) 4만본을 이식했다. 이식하고 남은 씨앗모종(2만본)은 계곡면 15개 마을에 분배, 식재하여 아름다운 마을과 시가지 조성에 힘을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경찰서·무주중 동아리 ‘여우벌’, 불법카메라 점검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12일, 무주고등학교 경찰동아리 ‘여우벌’ 과 함께 무주고등학교 교내 여자기숙사와 화장실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 ‘여우벌’ 학생들이 직접 불법카메라 감지기를 사용해 불법카메라를 점검하는 등 경찰직업 체험과 동시에 성범죄 예방 교육이 병행되었다.

앞서, 무주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불법촬영 카메라 일제 점검기간’으로 선정하고, 관내 불법촬영 성범죄 발생 우려지역 34곳을 지정, 계속해 공중화장실 점검과 더불어 성범죄 우려지역 방범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고창서 청문실, 주민에게 칭찬받는 직원 발굴 포상 격려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실에서는 주민에게 칭찬받는 직원을 발굴하여 표창 및 장려장을 수여하는 등 동료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분실품을 찾아주기 위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 활동 도중에 마을인근 양봉장에서 날아든 벌의 공격마저도 미소로 인내하며 수소문 끝에 주민에게 인계해주는 사례를 비롯 지역 주민들로부터 마을에서 우리나라는 칭찬받을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으로 진정한 공감을 얻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대표 이영근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